

## 조너선 크래리 읽기 - 『초토화된 지구: 디지털 시대를 넘어 포스트-자본주의 세계로』(2022)를 중심으로

하승우\*

1. 들어가며
2. 19세기 초반 시각 문화의 형성: '시각의 추상'
3. 영속화된 각성의 시간
4. 『초토화된 지구』
  - 4-1. '인터넷 복합체'
  - 4-2. 기술 자본주의 비판 및 생태 사회주의
5. 결론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조너선 크래리의 최근 저서 『초토화된 지구: 디지털 시대를 넘어 포스트-자본주의 세계로』(2022) (이하 『초토화된 지구』)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크래리의 이론적 궤적은 크게 보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는데, 전반기가 푸코적 관점에서 지식, 담론, 권력이 동일한 사회적 평면에서 배치되는 방식에 주목한다면, 후기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런 점에서 초기 크래리와 후기 크래리 사이에는 일정한 불연속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초토화된 지구』는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 저자는 인터넷과 글로벌 자본

---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부교수

주의가 때때야 뿔 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지시하기 위해 ‘인터넷 복합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복합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무력한 주체를 양산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장은 1장의 연속선상에서 기술 혁신과 자본축적의 공모 관계를 세밀히 들여다본다. 3장은 얼굴인식과 시선추적 등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합성 색채에 더욱더 많이 의존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된 상황을 ‘시각적 문맹’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생태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글은 『초토화된 지구』의 주요 논점들을 설명하고, 이와 동시에 크래리가 언급은 했지만 미처 풀어놓지 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논의함으로써 그의 주장이 지닌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터넷 복합체, 글로벌 자본주의, 얼굴인식, 시선추적, 생태 사회주의, 시각적 문맹)

## 1. 들어가며

조너선 크래리(Jonathan Crary)는 동시대 시각 문화연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론가로, 19세기 초반 서구 시각 문화의 형성을 광범위하게 조명한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1990)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처음 알렸다. 이후 크래리는 『지각의 유예: 주의, 스펙터클, 근대 문화』(2001), 『24/7 잠의 종말』(2014)을 출판했고, 가장 최근에는 『초토화된 지구』(2022)를 출판했다. 크래리의 논의가 시각 문화연구의 장(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초토화된 지구』를 중심으로 크래리의 논의를 규명하면서도, 크래리의 사상적 궤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전 저작이

제시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큰 틀에서 보면, 크래리의 초기 저서로 분류될 수 있는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은 『지각의 유예: 주의, 스펙터클, 근대 문화』와 연결되며, 『24/7 잠의 종말』은 『초토화된 지구』와 짝을 이룬다.

초기 크래리가 미셸 푸코의 방법에 입각하여 19세기에 형성된 서구 시각 문화의 계보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기 크래리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시각 문화의 양상을 규명한다. 크래리는 후기 저작에서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은 『초토화된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크래리의 가장 최근 저서인 『초토화된 지구』를 바탕으로 삼아 그의 사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의 주장이 동시대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재편되는 시각 문화를 진단하는 데 적실한지 훑어보고자 한다. 동시에 크래리가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다루지 않은 부분에 주목함으로써, 그의 주장이 지닌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자본주의의 맥락 속에서 동시대 시각 문화의 변화된 양상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19세기 초반 시각 문화의 형성: ‘시각의 추상’

이 절에서는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이 제시한 논점들을 다룬다. 우선 19세기 초반 시각 문화가 기존의 카메라 옵스큐라와 어떤 방식으로 단절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의 한쪽 벽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빛을 통과시키고, 반대 벽면에 외부의

모습이 거꾸로 나타나는 광학 장치를 말한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는 미술에서의 원근법과 유사하며, 이런 이유에서 많은 화가들은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했다. 곧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 세계를 본다는 것에는 인간 주체가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조너선 크래리는 서구 시각의 역사를 논하면서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불연속성이란 용어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듯, 그가 이 책에서 주로 의지하는 방법론은 푸코의 계보학이다. 크래리는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에서 19세기 초반(1820 - 1840)에 등장한 생리학적 광학이 17, 18세기 동안 유행했던 기하학적 광학 장치(카메라 옵스큐라)를 대체했다고 주장한다.<sup>1)</sup> 19세기 초반 시각 형태는 18세기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18세기만 하더라도, 눈은 단지 생리학적 기관이 아니라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수단, 즉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눈은 특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눈은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생리학적 실험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 이전 시기에 지녔던 우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세기 이전, 카메라 옵스큐라기 눈의 연장으로 여겨졌다면, 19세기 이후, 눈과 시각 기구의 관계는 하나의 동일한 평면에 자리 잡은 인접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로 재정의된다. “17-18세기 동안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은유적인 것이었다. 눈과 카메라 옵스큐라 혹은 눈과 망원경, 현미경은 개념적인 유사함에 의해 묶여 있었고 그 안에서 이상적인 눈이라는 권위는 확고 부동했다.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눈과 시각 기구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환유가 된다. 둘 모두 이제 다양한 능력과 외양을 갖는 동일한 활동

1) 조나단 크래리,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 임동근·오성훈 외 옮김, 문학과학사, 2001.

평면에 있는 인접한 장치였다. 눈의 한계와 결합은 시각 기구의 능력으로 보상되고 또 그 역도 성립했다.”<sup>2)</sup>

물론 19세기 이전의 ‘조망 체제’를 전부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로 19세기 이전의 시각장은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 베르베르로 대표되는 이질적 원근법주의, 그리고 바로크 시각 양식 등이 서로 경합하는 이질적 장이었다.<sup>3)</sup> 그러나 다종다양한 시각의 양상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데카르트 원근법주의가 시각적 헤게모니를 획득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복수의 시각 형태가 공존하는 것과 그들 중에서 지배적 시각 형태가 존재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데카르트적 원근법주의로 대표되는 기하학적 광학(17 - 18세기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내부와 외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비록 전도된 방식이긴 하지만, 외부의 객관 세계가 한쪽 벽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다른 벽면에 현상되기 때문이다. 다른 벽면에 비쳐진 이미지는 외부 세계와 일종의 지시 관계(reference)를 형성한다. 그러한 지시 관계는 내부와 외부 사이에 상동 내지는 유사함이 있음을 전제한다. 반면에 생리학적 광학(1820년대와 1830년대)이 대두되면서 “주관적 시각”이 부상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주관적 시각’은 인간 주체의 내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생리학적 시각으로서 자극과 감각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감각이 국지적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함축한다.

크래리는 19세기 초반 급증했던 생리학적 광학 실험의 양상을 전달하기 위해 자극과 감각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본 독일의 생리학자 뮐러를 인용한다. 뮐러는 다양한 자극이 인간의 신체에 전달되어도 “동일한

---

2) 위의 책, 195쪽.

3) 마틴 제이, 『모더니티의 조망 체제』, 이영철 역음,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시각성, 성, 테크놀로지, 물신주의, 문화 번역과 세계성』, 이영철 옮김, 시각과 언어, 1999, 78-86쪽.

느낌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눈”은 동일한 자극을 “다르게 그려”내기도 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극과 감각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극과 감각의 관계가 임의적인 까닭은 인간의 육체가 “오인(misperceive)이라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이처럼 19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눈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외부 세계의 이미지가 눈의 망막에 전달되면 눈을 감은 후에도 그 이미지가 망막에 남아있는 현상, 곧 잔상에 관한 연구와 실험들이 이어졌다. 실례로 잔상에 관한 괴테의 연구를 이어가던 푸르기니에는 잔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러한 잔상이 어떤 조건 속에서 변화하는지 관찰하고자 했다.<sup>5)</sup> 눈은 계량적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시각 체험은 감각의 측면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당시 서구에서 생리학적 광학 실험이 급증하면서, 생명 개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성하거나 이상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는 대신, 실험실에서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경되기에 이른다. 유기체와 비유기체를 구분하는 굳건한 경계가 해체되고, 인간의 신체 역시 “기계적 역량”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sup>6)</sup>

자극과 감각 간의 인과성이 해체되면서, ‘주관적 시각’이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곧 “눈과 이미지 사이에 어떠한 중재도 존재하지” 않기에, “보는 이에게 가장 근접한 대상”이 “시각적 우위성”을 차지한다.<sup>7)</sup> 예로 스테레오스코프(입체경)은 그러한 분리가 가장 극적으로

---

4) 조나단 크래리, 앞의 책, 139쪽.

5) 위의 책, 158쪽.

6) 위의 책, 137쪽.

7) 위의 책, 191쪽.

드러난 경우다.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있는 직사각형의 카드를 양안 렌즈로 바라보는 입체경에서 원근법적 심도는 약화되며, 이미지의 평면성이 강조된다. 원근법적 표상이 약화되면서 각각의 평면적 이미지 중에서 관찰자에게 가장 근접한 대상이 시각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시각 체험이 다른 감각들과 교체 가능한 체험으로 여겨지면서 시각 체험만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감각/체험이 표준화, 동질화, 수량화되는 현상을 크래리는 “시각의 추상”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시각이 다른 감각과 비교되거나 교환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화폐처럼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게 된다. “다른 감각과 마찬가지로 시각은 이제 추상적이고 교환 가능한 크기에 따라 설명된다. 예전 시각이 (괴테의 광학에서처럼) 질에 관한 경험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양, 즉 더 강하고 더 약한 감각 경험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 대한 가치, 즉 그 산술적 동질화를 통해 감각의 질적인 측면을 지워버리는 것은 근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다.”<sup>8)</sup>

‘시각의 추상’ 및 ‘주관적 시각’이 부상함에 따라, 관찰자(observer)가 전면부에 부각된다. 관찰자는 구경꾼과 편차를 보이는데, 구경꾼(spectator)이 “화랑이나 극장에서처럼 스펙터클 앞에서 수동적으로 구경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관찰자는 “마치 규칙을, 코드를, 규제를, 실천들을 준수하는 것(observing)처럼 자신의 행동을 확신하고 그에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관찰자는 “미리 규정된 가능성들의 체계 안에서 보는 사람”이고, “관습과 제한의 체제에 박혀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예측적 주체이지만은 않다. 크래리는 관찰자가 “환원불가능할 정도로 이질적인 담론적, 사회적, 기술적, 제도적 관계 체계의 효과”라고

---

8) 위의 책, 220쪽.

주장하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이 정보보다 우선하는 관찰 주체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sup>9)</sup> 이런 이유에서 관찰자는 이미 항상 존재하는 선형적 주체가 아니라, 시각 대상을 둘러싼 다종다양한 실천들이 중첩, 횡단, 교차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그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찰자는 두 가지 경로를 밟는다. 하나는 “시각의 주권과 자발성에 대한 다중적인 확신”으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관찰자의 점증적 표준화와 조절”, 곧 “시각의 추상화와 형식화에 의존하는 권력 형태”<sup>10)</sup>로 나아간다. 그러나 크래리는 특별히 어떤 경로가 지배적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다양한 경로들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이 19세기 초반에 발생한 시각 문화의 불연속성에 집중했다면, 『지각의 정지』는 시각을 지각의 문제로 확장시키면서,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적 근대성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그러한 변화가 일련의 시각 예술 작품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핀다. 에두아르 마네, 조르주 쇠라트, 폴 세잔 등의 작품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책에서 크래리는 19세기 후반부터 철학, 예술, 과학, 심리학 등의 담론에서 주의 (attention)라는 통념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을 집중해서 부각한다. 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이 수반하는 혼란스러운 사회적 경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권력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근대성의 결정적 국면 가운데 하나를 주의력의 지속적인 위기로 보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서 변화하는 자본주의적 편성들은 끝없이 잇따르는 새로운 생산물들, 자극의 원천들, 정보의 흐름들을 통해 계속해서 주의집중과 주의분산을 새로운 한계와 문턱으로 밀어 넣으며, 지각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새로운 방법들

---

9) 위의 책, 18쪽.

10) 위의 책, 223쪽.



로 응수한다.”<sup>11)</sup> 19세기 후반 주의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자본축적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노동력 통제 및 관리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래리는 주의가 기본적으로 예측적 주체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규율 권력만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sup>12)</sup>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크래리의 후기 저작들은 초기에 견지했던 푸코적 노선, 이른바 계보학적 노선보다는 자본주의 비판을 전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 3. 영속화된 각성의 시간

크래리는 『24/7: 잠의 종말』에서 24/7 자본주의 환경이 잠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는지 조명한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작동되는 자본주의를 뜻하는 24/7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가 영속화된 글로벌 자본주의 환경을 표상하며, 노동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정당화한다. 24/7은 과거 발터 벤야민이 언급했던 “공허한 동질적 시간”과 유사한 시간성을 내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24/7은 진보나 발전에 관한 여하한의 믿음조차도 내던진다는

11) 조너선 크래리, 『자각의 정치: 주의·스펙터클·근대문화』, 유운성 옮김, 문학과지성사, 2023, 35쪽.

12) 같은 곳. 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조건은 주의 내부에 존재한다. “주의는 언제나 그 내부에 그 자체를 해제할 조건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과잉으로 넘쳐날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는 어떤 하나의 사물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거나 그것이 내는 소리를 들으려 할 때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다. 어떤 식으로건 주의는 그것이와 해되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통상 이는 주의를 기울인 대상의 지각적 동일성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종의 소리들을 들을 때 그러하듯)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또는 그것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가 무아지경의 상태로, 심지어 자기 최면의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한계일 수도 있다.” 조너선 크래리, 위의 책, 88-89쪽.

점에서 '공허한 동질적 시간'과 편차를 보인다고 크래리는 말한다. “그림자 없이 불 밝혀진 24/7의 세계는 역사적 변화의 동력인 타자성을 악령 몰아내듯 몰아낸, 역사 이후의 최종적인 자본주의적 신기루다.”<sup>13)</sup>

자본주의 사회에서 잠은 낭비로 받아들여지며, 최대한 가치중립적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동일한 내용을 표현만 달리하면, 다른 모든 영역이 상품화된다고 하더라도, 잠은 자본이 침범할 수 없는 일종의 최후의 보루 같은 영역이다. 그러나 24/7 세계는 잠의 영역마저 잠식한다. 크래리에 따르면, 20세기를 거치면서 잠자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침탈당했는데, 현재 북미 성인이 평균 하룻밤에 대략 6시간 반을 자는 반면, 한 세대 전에는 8시간, 20세기 초반에는 10시간 수면을 취했다.<sup>14)</sup> 24/7 자본주의가 잠의 영역을 침해한 결과, 잠은 구매의 대상으로 변경되기에 이른다. 오늘날 대중은 쾌적한 수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24/7이 주도하는 잠의 파괴는 삶의 소진을 일상화시키며, 다른 사회적 파괴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침해하는 폭력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잠의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강탈과 사회적 파괴의 수많은 다른 형태와 분리 불가능하다.”<sup>15)</sup>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은 빛과 대비되는 어둠을 제거하며 영원한 각성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낮과 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삶의 무력화를 촉진한다. 24/7 자본주의는 “낮-밤, 빛-어둠, 행동-휴식의 경계를 꾸준히 잠식한다. 그것은 무감각의 지대, 기억상실의 지대, 경험의 가능성을 좌절시키는 어떤 것의 지대”다.<sup>16)</sup> 잠의 축소는 생리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과정이

13) 조너선 크래리,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옮김, 문학동네, 2014, 25쪽.

14) 위의 책, 27쪽.

15) 위의 책, 37쪽.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력은 사이보그가 아닌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고서는 재생산될 수 없다.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사용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면, 재생산 과정으로서 잠을 자는 시간은 이미 침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영역인 셈이다. 24/7과 관련해서 노동시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시간이 축소될 것만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24/7 자본주의에서 노동시간은 연장되고, 노동강도 역시 더욱 강화된다. 24/7 자본주의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거의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거나 여러 대상에 주의를 배분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의 조밀한 다층화”<sup>17)</sup>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동성과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유목적’ 주체란 것은 전복적이기는커녕, 실은 자본주의가 재구조화됨에 따라 변화된 노동의 본성을 가리킬 뿐이다.

물론 24/7 자본주의가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규율 권력’ 내지는 ‘통제사회’ 개념 역시 24/7 자본주의와 일정한 특성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가정, 학교, 군대, 공장, 병원, 감옥 등 특정한 공간 속에서 행사되는 ‘규율 권력’은 특정한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른바 인구)에 관한 지식을 형성한다. 개인은 권력이 부여하는 규율을 내면화함으로써 주체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때 권력은 억누르고 억압하는 권력이 아니라 장려하고 촉진하는 권력, 즉 생산하는 권력으로 기능한다. 예로 자본가는 협업의 형식을 통해 노동자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더 많은 이윤을 추출해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노동자에 관한 지식을 생산한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불필요한 노동자의 신체 동작을 최적화하는 테일러리즘은 대표적인 ‘규율 권력’ 가운데 하나

---

16) 위의 책, 35-36쪽.

17) 위의 책, 133쪽.

다. 물론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는 테일러 이전 시기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테일러의 노동 통제가 이전과 다른 점은 관리자가 노동자가 준수해야만 하는 표준 매뉴얼을 노동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직할 수 없으며,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노동 양식에 '적응'해야만 한다. "테일러는 작업이 행해져야 하는 정확한 방식을 노동자에게 지시하는 적절한 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통제의 개념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만들었다."<sup>18)</sup>(강조는 원문)

크래리는 24/7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질 들뢰즈의 '통제사회'와 기드보르의 스펙터클 개념의 틀을 빌려 자신의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들뢰즈의 통제사회에 주목해 보자. 들뢰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통제사회'(control societies)가 규율사회를 대체했다고 본다. 이것은 전적으로 들뢰즈의 독창적인 판단만은 아니다. '통제사회'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버로스였고, 푸코와 비릴리오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들뢰즈의 '통제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실물팽창에서 금융팽창으로 전화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다. 규율사회가 아날로그적이라면 통제사회는 디지털적이다. 규율(혹은 감금)이 주형(molds)에 관한 것이라면, 통제는 "하나의 계기에서 다른 계기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기-변화하는(self-transmuting) 주형," 즉 모듈레이션(modulation)에 관한 것이다.<sup>19)</sup> '통제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체계(system)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다른 사람(people)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대중(mass)의 구별도 무의미해졌다. 개인(individual)은 "가분체

18)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이한주, 강남훈 옮김, 까치, 1989, 85쪽

19) Gilles Deleuze. *Negotiations, 1972-1990*, trans. Martin Joughi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p.178-179.

(dividuals)”가 되었고, 대중은 “샘플, 데이터, 시장, 혹은 ‘은행’”이 되었다.<sup>20)</sup>

크래리는 24/7 세계를 논의하기 위해 들뢰즈의 ‘통제사회’ 개념에 의존하지만, 들뢰즈에 대해서는 다소간 유보적 입장을 보인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통제사회’의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한 공간에 기반을 둔 ‘규율 권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들뢰즈의 생각과는 반대로, 정신이 나갈 만큼 팽윤된 감옥들의 네트워크가 갈수록 확장되는 가운데, 오늘날 엄혹한 물리적 감금의 활용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광범위하다.”<sup>21)</sup> 들뢰즈에 대한 크래리의 입장은 『초토화된 지구』에서 좀 더 비판적으로 기술된다. 크래리에 따르면, 들뢰즈, 가타리가 『앙띠 외디푸스』에서 예찬한 광기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환경에서 더 이상 유효한 저항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1970년대 광기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앙띠 외디푸스』에서 주장한 것처럼 적어도 발본적인 잠재력을 지닌” 저항의 일부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본주의 환경은 1970년대와 상당한 정도로 차별화된다. “40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의 가혹한 평준화와 청산화 과정은 1970년대보다 훨씬 더 침략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광기가 다른 곳으로 도피하거나 탈주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었다. 24/7 시간성에의 비자발적인 몰입은 도주나 유목이 결여된 유사-정신증의 만연한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다.”<sup>22)</sup>

이런 점에서 크래리는 『초토화된 지구』에서 허버트 마르쿠제나 기 드보

---

20) Ibid., p.180.

21) 조너선 크래리, 『24/7 잠의 종말』, 117쪽.

22) Jonathan Crary, *Scorched Earth: Beyond the Digital Age to a Post-Capitalist Worl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22, p.22.

르 등을 주로 언급한다. 마르쿠제는 후기 구조주의 이론가들에게 구식의 이론으로 폄하되었다. 마르쿠제의 이론이 기술의 “유희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크래리는 마르쿠제의 이론을 재평가한다. 크래리가 보기에, 마르쿠제 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기술과 예측, 합리성과 강압을 결합함으로써 사회를 관리한다는 주장”에 있다.<sup>23)</sup> 우리는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낄 때, 어쩌면 가장 예측적 주체의 삶을 영위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크래리는 기술의 양가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러한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재전유’되는가에 주목하는 후기 구조주의 이론과도 분명한 선을 긋는다. 이는 크래리가 『초토화된 지구』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입장인데, 바로 이 지점에서 크래리는 초기의 입장과 뚜렷한 편차를 보인다.

기 드보르 역시 크래리의 중요한 이론적 참조틀이다. 크래리는 이미 1989년 『옥토버』에 기고한 글에서 드보르의 스펙터클 개념을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보르를 자주 언급해왔다. 크래리가 보기에, 드보르가 주장한 스펙터클 개념은 “역사적 지식의 소멸”과 맞닿아 있다.<sup>24)</sup>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하게, 스펙터클은 개인을 무력한 정치적 주체로 고립시키는 전략과 연동된다. “스펙터클은 이미지들을 바라보는 일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으며 그보다는 주체들을 개별화하고 고정하고 분리하는 조건들을 구성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sup>25)</sup>(강조는 원문). 이처럼 60년대 드보르가 제안한 스펙타클 개념은 사회적 현실로부터의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sup>26)</sup>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

23) Ibid., p.87.

24) Jonathan Crary, “Spectacle, Attention, Counter-Memory”, *October* Vol. 50, Autumn, 1989, The MIT Press, p.106.

25) 조너선 크래리, 『지각의 정지: 주의·스펙터클·근대문화』, 134쪽.

26) 크래리는 『초토화된 지구』에서 드보르가 『스펙터클 사회』에서 공장 평의회를 언급한

계”<sup>27)</sup>인 스펙타클은 사회를 조건짓는 여러 힘들의 관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드보르는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직감한다. 이제 스펙타클은 자신의 산출 배경이었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지 ‘분리’되는 것을 넘어 현실을 ‘재구축’하기에 이른다.

드보르가 제시한 스펙타클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드보르는 1967년 『스펙타클의 사회』를 출판한 후, 1988년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을 저술한다.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스펙타클 개념은 “집약된 스펙타클”과 “분산된 스펙타클”로 구분된다. ‘집약된 스펙타클’이 “관료주의적 자본주의”나 “선진 자본주의의 특정한 위기 국면에서 국가권력의 기술”과 관련된다면, ‘분산된 스펙타클’은 “상품의 과잉, 중단 없이 발전하는 현재 자본주의”와 맞닿아 있다.<sup>28)</sup> 반면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에서 드보르는 80년대 후반의 스펙타클을 “통합된 스펙타클”로 개념화하면서, 그러한 ‘통합된 스펙타클’이 집약과 분산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통합된 스펙타클’은 “스펙타클이 현실을 말함에 따라 현실 속에 그것[스펙타클]이 통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스펙

---

부분이 비중 있게 조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드보르는 노동자 평의회 집행부가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평의회 집행부가 “분리의 세계와의 급진적 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변한 바 있다.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4, 123쪽. 한편 사회적 현실로부터 분리된 자본주의로부터 또 다른 분리를 모색하는 작업은 『지배와 사보타지』같은 안토니오 네그리의 저작에서 종종 발견된다. “노동자계급 독립성의 수립”은 “노동자계급의 분리 안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분리는 “자본관계의 파괴”를 뜻한다. “분리는 노동자계급이 사회회의의 최고 지점에 도달한 후 자본의 사회적 매개 법칙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토니오 네그리, 『지배와 사보타지』, 윤수중 편역, 새길, 1996, 58쪽. 한편 드보르는 아방가르드 조직인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의 일원이기도 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피터 윌렌,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20세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송평인 옮김, 시각과 언어, 1998을 참조.

27) 기 드보르, 위의 책, 15쪽.

28) 위의 책, 60-62쪽.

터클이 현실을 말한대로 그것[현실]이 재구축되는 것”을 뜻한다.<sup>29)</sup> 크래리 역시 드보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환경이 더욱더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고 진단한다. “196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스펙터클의 효과에서 면제된 사회적 삶의 영역이 아직 남아 있었던 반면, 그가 글을 쓰고 있는 시대(1990년경)에는 그런 영역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sup>30)</sup> 이런 점에서 24/7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상황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4. 『초토화된 지구』

『초토화된 지구』는 크래리가 가장 최근에 쓴 저서다. 책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인터넷 복합체’를 논의한다. 크래리는 ‘인터넷 복합체’를 엄밀하게 정의하진 않지만, 그것은 우선 인터넷에 관련된 요소들이 서로 관련을 맺으며 형성하는 일련의 복잡한 그물망을 지시한다. 예로 군산 복합체에 기원을 둔 ‘인터넷 복합체’는 프로토콜, 디지털 플랫폼, 플랫폼 이용자들의 활동, 국민 국가 내 제도 등 인터넷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래리가 ‘인터넷 복합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터넷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지시하기 위해서다. “24/7 자본주의의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범위”와 밀접하게 연결된 ‘인터넷 복합체’는 자본의 “축적, 추출, 순환, 생산, 운송, 건설의

---

29) 기 드보르, 위의 책, 25쪽

30) 조너선 크래리, 위의 책, 119쪽.



광판'과 유착된 관계를 형성한다.<sup>31)</sup> 2장은 1장의 연속선상에서 기술 자본주의의 폐해를 파헤친다. 기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크래리는, 기술 혁신과 자본축적의 악순환적 공모 관계를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그가 보기에 “인간 행위성과 창의성의 삭제”<sup>32)</sup>에 기반을 둔 기술 자본주의는, 기술을 인간 주체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3장은 망막 스캔과 얼굴인식 등 동시대 감시 자본주의의 현황을 들여다본다. 크래리는 3장에서도 1장과 2장에서 진행했던 자본주의 비판을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에 근간을 둔 감시 자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우리 시대 대중이 합성 색채에 더욱더 많이 의존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크래리는 이를 ‘시각적 문맹’으로 진단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생태 사회주의와 탈성장을 제안한다.

#### 4-1. ‘인터넷 복합체’

그는 서두에서 이 책의 목적이 “미묘한 이론적 분석의 제시”가 아니라, “적응과 체념이 아닌 발본적 거부의 형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있다고 분명히 밝힌다.<sup>33)</sup> 크래리가 책의 서두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듯이, 『초토화된 지구』는 어중간한 절충주의와 단절하면서 급진적 거부의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본주의로부터의 거부인 동시에 크래리가 ‘인터넷 복합체’라고 부른 것으로부터의 급진적 분리를 지시한

---

31) Jonathan Crary, *Scorched Earth: Beyond the Digital Age to a Post-Capitalist Worl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22, p.2.

32) Ibid., p.59.

33) Ibid., p.3.

다. 그가 보기에 인터넷은 19세기 마르크스가 말한 세계시장이 현실화된 것이다. “인터넷의 거의 즉각적인 연결성은 1850년대에 마르크스가 예측한 글로벌 시장(세계시장)의 실현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세계 통일의 필연성을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유통과 교환의 속도에 대한 제약은 ‘시간에 의한 공간의 소멸’을 통해 점진적으로 소멸될 것이다.”<sup>34)</sup> ‘인터넷 복합체’는 단지 글로벌 자본주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주의 자체인 셈이며, 이런 이유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는 ‘인터넷 복합체’와의 발본적인 단절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 위대한 거부의 방식은 초기 크래리의 이론적 노선과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다. 초기 크래리가 푸코나 들뢰즈의 노선을 따르면서, 하나의 단일한 사회적 평면 위에 펼쳐있는 담론, 제도, 기술, 권력(힘들)의 복잡한 효과 및 관계들을 따지고 들었다면, 이 책에서는 초기의 방법론을 유지하면서도, 그것들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조건인 자본주의 자체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무렵, 인터넷에 관한 낙관적 전망이 우세하던 때도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복합체는 내재적으로 민주적이고 탈중심적이며 반위계적인 것으로 홍보되었다. 하향식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단이 될 것이며, 미디어 액세스라는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sup>35)</sup> 크래리는 인터넷이 처음에는 전복적 잠재력을 지녔지만, 여러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그 전복성이 상실되었다고 진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강조하는 대목은 ‘인터넷 복합체’가 처음부터 전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래리에 따르면, ‘인터넷 복합체’는 본래부터

---

34) Ibid., p.6.

35) Ibid., p.9.

사회 권력이 작동하기 위한 통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독점 기업, 망 중립성 폐지, 사생활 침해로 인해 평등주의적 기술이 위협에 처했다는 서사는 명백한 거짓이다. ‘디지털 커먼즈’는 예전에도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전지구적 공중을 위한 인터넷 액세스는 항상 시간의 포획과 권한의 박탈 및 탈개인화된 연결성에 관한 것이었다.”<sup>36)</sup> 크래리는 ‘인터넷 복합체’에 대해 무척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이에 관한 그 어떠한 낙관적 전망도 허용하지 않는다.

크래리는 다양한 지점에서 ‘인터넷 복합체’에 관한 비판을 전개해 나간다. 그는 인터넷을 옹호하는 관점을 먼저 소개한 후에, 그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식으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아카이브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에 맞서, ‘인터넷 복합체’가 아카이브 기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기억의 마비”<sup>37)</sup>를 특징으로 한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다. 크래리에 따르면, 이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시간성의 측면에서 ‘현재주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now)을 특권화하고 즉시성(instantaneity)과 즉각적 가용성이라는 환영을 조장”<sup>38)</sup>하는 ‘현재주의’는 어제보다 나은 지금을 강조하긴 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에 ‘현재주의’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재구축된다. 곧 미래는 ‘지금’이 부여하는 엄혹한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한 유토피아의 계기로 인식되기는커녕, 현재의 시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시간성을 측량하는 척도로 자리매김될 뿐이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간성이 유토피아적 전망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크래리는 사회 운

---

36) Ibid., p.10.

37) Ibid., p.8.

38) Ibid., p.53.

등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결합을 강조하는 일련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대개 이런 입장은 대중 운동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결합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유목적 주체의 출현에 주목하곤 한다. 그러나 크래리는 인터넷이 대중 운동을 전개할 때 아무런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인터넷은 분파주의와 고립주의를 양산한다. 상황이 그렇다면, 인터넷 복합체는 “사회가 해체되도록 하는 포괄적 글로벌 장치”<sup>39)</sup>로 기능할 뿐이다.

#### 4-2. 기술 자본주의 비판 및 생태 사회주의

전술한 내용에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 크래리는 AI,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기술과 자본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크래리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 내지는 공진화를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운다. “자본주의가 말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적 빈곤과 환경 파괴로 인해 황폐화된 지구에서는 더 이상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목적이나 필요에 부합하는 척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한때 유행했던 인간과 기계가 점차 하이브리드 개체로 합쳐지는 공진화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예측은 몇몇 정신증적 '특이점' 광신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되어졌다.”<sup>40)</sup> 그는 사물과 사물의 접속이 전면화되면서 인간이 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상호 접속이 인간적 성찰의 시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로 다른 기기와 네트워크 간에 컴퓨팅 성능을 스트리밍하는 새로운 속도는 센서가 장착된 '사물'이 자율적으로

39) Ibid., p.9.

40) Ibid., pp.58-59.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지속적으로 작동을 조정하고 업데이트될 것이다. 이러한 빠른 연산 속도는 인간들이 성찰적 숙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쓸모없게 만든다.”<sup>41)</sup>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장치 중 하나가 얼굴인식 기능이다. 이미 우리는 무인 매장 내에 설치된 AI 기반 카메라가 고객의 쇼핑 동향을 파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얼굴인식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얼굴을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얼굴을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얼굴인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라벨을 붙이는 작업은 온전히 기계적 작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얼굴인식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컴퓨터는 인식한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가? 둘째, 컴퓨터가 이미지를 분류할 때, 인간은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얼굴인식의 경우에서처럼 시선을 자본주의 가치화 과정과 연동시키는 작업은 최근에 발생한 현상만은 아니다. 서구는 가장 늦게 잡아도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시선과 주의(attention)의 문제를 활용해왔고, 오늘날 이러한 흐름은 '주목 경제'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학교, 작업장, 군대,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많은 경제 활동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끊임없는 사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데이터 수집의 주요 장소가 된 것은 자명하다. 하이테크 기업들은 재정적 성공을 위해 최대한 많은 "시선"을 끌어모아야 하는 "주목 경제"를 둘러싼 그들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

---

41) Ibid., pp.59-60.

다.”<sup>42)</sup>

얼굴인식의 연속선상에서 시선추적의 문제도 대두된다. 시선추적은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어떤 기능이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지 알려준다. 곧 시선추적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좀 더 특별한 주의력을 기울여 집중하는지, 혹은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상품에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 등을 탐색한 뒤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정량화한다. 시선추적의 핵심은 “안구 운동과 상대적 부동(immobility)의 간격 사이에 형성되는 패턴”, 즉 “고정(fixation)”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다. 그러나 크래리가 보기에 시선추적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은 잘못된 가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특정 위치를 향하고 있다면 이것이 주의(attention)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의라는 문제가 안구 운동에 기반한 “생리학적 모델로 축소”될 뿐이다.<sup>43)</sup>

시선추적에는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 이용자는 하나의 시각 대상에 그/녀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며 이리저리 시선을 바꾼다. 오늘날 시선추적의 기술은 여기 저기 움직이는 이용자의 시선 이동을 감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사용성(usability)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각적 불확실성과 모호함의 사소한 자료를 수정하거나 제거한다.”<sup>44)</sup> 이에 따라 특정한 대상에 ‘안정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시각적 불확실성은 주변화된다. 오랫동안, 시각적 모호함은 시각 경험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했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특히 예술적 시각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

42) Ibid., p.93.

43) Ibid., p.96.

44) Ibid., pp.98-99.

는 시각적 불명확함의 경험이 부차적인 것으로 가치 절하된다. 이처럼 얼굴인식, 시선추적과 같은 생체인식(Biometrics)은 크래리가 『초도화된 지구』에서 집중해서 부각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다. 일반적으로 생체인식은 감시와 관련되어 언급되지만, 크래리는 생체인식이 기본적으로는 노동력 통제 및 치안과 관련된 권력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체인식(Biometrics)은 명확하지 않은 도시 인구에 관한 정보, 특히 노동 조직화, 새로운 형태의 치안 및 통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sup>45)</sup> 3장의 초반부가 얼굴인식과 시선추적 등의 생체인식의 문제를 다룬다면, 후반부에서 크래리는 동시대 자본주의 상황을 색채의 문제와 연결 짓고, 이를 ‘시각적 문맹’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한다.

우리는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ce)이 보편화되면서 물리적 현실의 색채를 가깝게 또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또는 심지어 (이에 관한) 동기부여마저 상실했다. 우리는 눈부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익숙해지면서 색채에 관한 인식이 무뎌지고 생활환경의 섬세한 변화에도 무감각해졌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낮과 밤이 바뀌는 끊임없는 리듬에 맞춰 살았다. 매일 아침은 달빛이나 별빛이 비추는 어둠이 사라지면 세계가 꽃을 피우고 다시 채색되는 시간이었다. ...(중략) 그렇기에 황혼은 낮에서 밤으로의 이행에서 항상 독특한 부분이 되어왔다. 땅거미 질 무렵은 직접적인 태양 광선으로부터 간접적이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하늘의 빛으로 전환되면

---

45) Ibid., p.92. 크래리는 동시대 시선추적이 적외선(IR)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시선추적은 적외선(IR)으로 관찰자를 표적으로 삼는다. 사람의 눈은 적외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렬한 백색광이나 햇빛에 반응할 때처럼 눈꺼풀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신체가 보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적외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 주체가 동공을 수축하는 등 시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외선은 “눈의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 실제로 눈을 ‘굽게’하고, 시세포를 손상시킨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외선 노출은 백내장, 각막 궤양 및 망막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Ibid., p.101.

서 우리의 민감도가 증대되는 시간이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 색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sup>46)</sup>

합성 색채가 범람함에 따라 우리는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자연적 시지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크래리가 말하는 '시각적 문맹'은 자연과 마주하고 자연을 감각하는 능력의 상실을 가리킨다. '시각적 문맹'이 편재하고 범람한 결과, 우리는 생태적 환경에 더욱더 무관심하게 된다. 크래리는 이 지점에서 감각적 경험, 대면 만남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조우는 말, 이미지 또는 정보의 교환이나 전달과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비언어적, 비시각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얼굴을 마주한 만남은 생활 세계와 그 공통성의 환원할 수 없는 기반이며, 규범적 커뮤니케이션과는 전혀 무관한 예기치 않은 무언가의 출현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다."<sup>47)</sup>

## 5. 결론을 대신하여

『초토화된 지구』는 동시대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동원한다. 이 책이 묘사하고 지향하는 방향은 단순할 정도로 분명하다. 우리 시대 글로벌 자본주의를 "초토화된 지구"로 묘사하는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 "포스트-자본주의 세계"를 지향한다. 책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생태 사회주의와 탈성장을 추구한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저항의 이론

---

46) Ibid., p.106.

47) Ibid., p.91.



적 틀을 생태주의에서 찾는 것이다. 크래리가 이론적 전거로 자주 활용하는 기 드보르 역시 이미 1970년대 생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드보르에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 생태 문제에 관한 드보르의 관심을 공유하지는 못했다. 확실히 1960년대 저항운동에서 생태 운동은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지만, 오늘날 기후 위기는 그 어떤 의제보다도 중요한 의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크래리가 추구하는 선명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비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초토화된 지구』가 지향하는 일련의 목표들이 단지 공허한 수사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크래리가 포스트-자본주의와 생태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를 열쇳말 삼아 이 책의 시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에서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뉘어진 뒤에 가치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이해되는 노동과 관련된 가치 개념은, 다시 구체(현실적) 노동과 추상(사회적) 노동으로 나뉘어진다.<sup>48)</sup> 이런 배경에서 『자본』에서는 “종합(synthesis)의 마지막 계기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통일체의 일시적 계기만 존재”하는데, “이 통일체는 그 내부에 또 다른 하나의 모순-이중성-을 안고 있고 따라서 그 통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진전된 논의를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자본』에서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방식”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논의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다.”<sup>49)</sup> 정리하면, 『초토화된 지구』는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펼친 방식, 즉 기존의 범주를 끊임없이 변형하면서 논의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초토화된 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장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48)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강신준 옮김, 창비, 2016, 58쪽.

49) 위의 책, 59쪽.

확장되기보다는, 동어반복적으로 전개된다. 즉 각각의 장은 이전의 장과 논리적,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동일한 주제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책의 전체 구성이 에피소드의 모음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초토화된 지구』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도 다소간 제한적이다. 이 책에서 역사는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 정도로 제시되는 데 그친다.

여기서 『초토화된 지구』는 『자본』의 ‘서술방식’과 비교된다. 『자본』은 이론과 역사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참조점을 제시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자본』의 논리적 구성은 가치에서 잉여가치로, 또 잉여가치에서 자본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본의 자기운동의 과정은 『자본』의 1권에서부터 3권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논리를 구성한다. 그러나 『자본』에는 ‘이론적’이고 논리적 부분과 더불어 ‘역사적’ 부분이 공존한다. 예컨대 칼 마르크스는 노동일에 대한 분석, 본원적 축적에 대한 분석 등에서 이론적 분석보다는 역사적 분석에 집중한다. 일각에서는 『자본』전체의 ‘서술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마르크스가 착취의 역사적 형태를 분석한 부분을 부차적 영역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결코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행한 역사적 부분은 ‘이론적’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론이 제대로 이론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론은 (자신의 한계 내에서) 열려 있는 동시에 닫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sup>50)</sup>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론이 “열려 있는 동시에 닫혀 있어야” 한다는 알튀세르의 표현이다. 열림과 닫힘은 두 개의 변별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 속에 위치한 두 가지 변별적 계기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론은 역사 속에서 과잉결정되면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다.

50) 루이 알튀세르, 「제라르 뒤메닐의 저서 “자본”의 경제법칙 개념”의 서문, 배세진 옮김, 『인-무브』, 2023.08.29. <https://en-movement.net/198>

그러나 이론과 역사의 변증법은 『초토화된 지구』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례로 크래리는 ‘초토화된 지구’가 우리 시대 생태 위기를 강력하게 지시하는 지표로 기능한다고 강변하면서, 이에 관한 사례로 CAFO(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와 같은 공장식 사육 시설을 언급한다. 공장식 축산은 “무시무시한 감금 상태에서 생화학적으로 자극을 받으며 성장하는 수십억 마리의 지각 있는 동물(sentient animals)이 식료품으로 전환되는 곳이다. 폐기물, 계속되는 도살, 확장되는 거름 웅덩이, 오염된 땅과 물, 저임금 노동자들을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공기는 이 시스템에 생계를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가시적일뿐만 아니라 외부적이다.”<sup>51)</sup> 그러나 크래리는 공장식 사육 시설 등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이 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 코로나19와 맺는 복잡한 연관에 대해서는 천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크래리가 언급은 했지만, 상세하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을 ‘대리보충’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병원체가 사람에게 전파되어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은 보유 숙주의 몸속에서 기생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병원체가 인간에게 옮겨져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생태계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면 병원체는 보유 숙주의 몸속에서 큰 탈 없이 살아가는 반면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기면 숨어있던 병원체들이 나타나 감염병의 원인이 되고는 한다. 그러므로 생태 및 기후 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 기존의 동물서식지가 무분별하게 침탈당했고, 그 결과 인간과 동물이 접촉하는 기회와 빈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을 초래한 것이다. 공장식 축산 역시 코로나

---

51) Jonathan Crary, *Scorched Earth: Beyond the Digital Age to a Post-Capitalist Worl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22, p.74.

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초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합성사료 및 면역력 저하에 따른 항생제 남용으로 가득 찬 공장형 축산 농장은 신종 병원체가 출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sup>52)</sup>

생태 위기가 코로나19의 출현을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면, 코로나19는 “구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본의 이익에 복무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19는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장에 기폭제가” 되었고, “자본주의에 위협이 되기보다 오히려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sup>53)</sup> 바로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하고 심화시킨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재난에 반응하는 방식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실례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의 국민 국가 본위로 행사됨에 따라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사회적 집단 가운데 하나였다.

정리하면, 코로나19는 기후 및 생태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은 이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기후변화 및 위기를 새로운 이윤 창출의 계기로만 활용해 왔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생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 변혁과 긴밀하게 연동시켜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모순에 대한 해결 없이 단지 생태적 전환만을 도모하는 것은 또 다른 대응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곧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자본축적 전략을 문제시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그

52)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로는 하승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삶과 생태사회주의」, 『문화/과학』 103호, 2020 참조

53) 시민건강연구소,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프레시안』, 2023.08.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98239>

러나 크래리는 생태 위기, 인수공통감염병, 자본주의가 맺는 복잡한 ‘관계’에 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말하는 포스트-자본주의가 다소 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크래리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어떠한 대안적 전략도 제시하지 않으며,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변화”라는 슬로건의 의미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닌 장점은 매우 뚜렷하다. 그것은 크래리가 책의 서두에서 밝혔듯, 그가 어떠한 절충주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다른 모든 사회적 실천을 근거 짓는 역사적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도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초토화된 지구』가 동시대 자본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전적으로 올바르다. 설사 그것이 ‘규제적 이념’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과 단행본

-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4.
- \_\_\_\_\_, 『스펙타클의 사회에 대한 논평』, 유재홍 옮김, 울력, 2017.
- 데이비드 하비,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강신준 옮김, 창비, 2016.
- 마틴 제이, 「모더니티의 조망 체제」, 이영철 역음, 『21세기 문화 미리 보기: 시각성, 성, 테크놀로지, 물신주의, 문화 번역과 세계성』, 이영철 옮김, 시각과 언어, 1999.
- 루이 알튀세르, 「제라르 뒤메닐의 저서 “자본”의 경제법칙 개념”의 서문」, 배세진 옮김, 『인-무브』, (<https://en-movement.net/198>)
- 시민건강연구소, 「코로나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프레시안』, 2023.8.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98239>
- 안토네오 네그리, 『지배와 사보타지』, 윤수종 편역, 새길, 1996.
- 조나단 크래리, 『관찰자의 기술: 19세기의 시각과 근대성』, 임동근·오성훈 외 옮김, 문학과학사, 2001.
- \_\_\_\_\_, 『24/7 잠의 종말』, 김성호 옮김, 문학동네, 2014.
- \_\_\_\_\_, 『지각의 정치: 주의·스펙터클·근대문화』, 유운성 옮김, 문화과지성사, 2023.
- 피터 윌렌, 『상황주의 인터내셔널: 20세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송평인 옮김, 시각과 언어, 1998.
- 하승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삶과 생태사회주의」, 『문화/과학』 103호, 2020. 97-116쪽.
- 해리 브레이버맨, 『노동과 독점자본』, 이한주, 강남훈 옮김, 까치, 1989.
- Gilles Deleuze. *Negotiations, 1972-1990*, Martin Joughin(tran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Jonathan Crary, “Spectacle, Attention, Counter-Memory” in *October* Vol. 50, The MIT Press, 1989.
- \_\_\_\_\_, *Suspensions of Perception: Attention, Spectacle, and Modern*

*Culture*,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1999.

\_\_\_\_\_, *Scorched Earth: Beyond the Digital Age to a Post-Capitalist World*, (London and New York: Verso), 2022.

## Abstract

Reading Jonathan Crary: A Study of *Scorched Earth: Beyond the Digital Age to a Post-Capitalist World* (2022)

HA, Seung Woo(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offers a critical introduction to Jonathan Crary's recent book *Scorched Earth: Beyond the Digital Age to a Post-Capitalist World* (hereafter, *Scorched Earth*). The theoretical trajectory of Crary's writing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a first and second half. The first half employs a Foucauldian perspective to clarify how knowledge, discourse, and power are positioned on the same social plane, while the second half articulates a more globalized critique of capitalism. In this sense, there is a significant discontinuity between early and late Crary. *Scorched Earth* is organized into three chapters. In Chapter 1, Crary uses the neologism "internet complex" to refer to the inextricable link between the internet and global capitalism while critically examining how the "internet complex" has produced politically powerless subjects. In Chapter 2, he scrutinizes the complicit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 capitalism in this process. In Chapter 3, he first critically examines phenomena such as facial recognition and eye-tracking technologies and then analyzes "visual illiteracy," which refers to a condition where humanity has lost its physical ability to communicate with nature due to its increasing reliance on artificial color. Crary proposes ecological socialism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Crary's arguments by elucidating the main points of *Scorched Earth* and discussing the issues he mentions but fails to elaborate on.

(Keywords: Internet Complex, Global Capitalism, Face Recognition, Eye Tracking, Eco Socialism, Visual Illiteracy)



조너선 크래리 읽기-『초토화된 지구: 디지털 시대를 넘어 포스트-자본주의 세계로』(2022)를 중심으로 / 하승우 479

■ 논문투고일 : 2023년 8월 30일  
논문심사일 : 2023년 10월 8일  
수정완료일 : 202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19일